

광주일보사 초·중고생 뉴질랜드 여학연수기

광주일보사가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3월2일 까지 뉴질랜드 여학연수를 실시했다. 제1회 광주·전남 초·중영어학력평가 성적우수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폭넓은 세계관과 해외 생활을 통해 원활한 영어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 참가했던 이우찬(당시 광주북로초, 현재 봉산중 1년) 군과 박경민(무안남약중 2년) 양의 현지 학교생활과 홈스테이의 느낌을 실어본다.

의 생활을 통해 원활한 영어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 참가했던 이우찬(당시 광주북로초, 현재 봉산중 1년) 군과 박경민(무안남약중 2년) 양의 현지 학교생활과 홈스테이의 느낌을 실어본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박경민 무안 남약중학교

뉴질랜드에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라 장장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우리를 맞으러 나오신 찰리, 토니, 린 선생님의 차를 타고 스탠모어베이 스쿨(Stammore Bay School) 내에 위치한 뉴질랜드 문화교육원 사무실로 향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한달 간 머무르게 될 홈스테이의 가족을 만났다. 집은 아주 맘에 들었다.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파랗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을 보니 왠지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홈스테이집이 아침은 무얼 먹는지, 점심, 컵들은 어디에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며 주말엔 지인들을 소개해 줬다. 주변 사람들까지 소개받고 나니 왠지 홈스테이 가족과 정말 '가족'이 된 것만 같았다.

학교 가는 첫 날 정말 설레었다. 홈스테이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Whangaparaoa College로 향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는데 수업이 발단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수업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적은 아이들이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학교생활은 매일 새롭고 짜릿했다.

마오리 시간에 인사말 암송해서 칭찬받은 일, 미술교실 벽에 내 작품이 붙어 있었던 일, 사회 시간에 산책 관련된 문제를 맞췄던 일, 학교 athletic day에 100m달리기 나가서 3등한 일 등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것,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키위(Kiwi·뉴질랜드인) 친구들은 내가 재채기를 하면 감기에 걸렸는지 걱정해 주고, 보건실까지 같이 가 줄 만큼 내게 따뜻했다. 선생님들도 수업 도중에 틈틈이 "Julia, Are you okay?"라고 내게 불편함은 없는지 물어보셨다.

뉴질랜드 문화교육원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셨다. 아플 땐 학생 본인보다 더 걱정해주셨다. 이러니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느낄 수가 있었다.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고, 선물도 주고, "정말 가야돼?"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홈스테이집도 "그냥 비행기 놓치고 여기서 계속 살아~"라고 말하며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셨다.

다음날 아침 공항까지 가면서 생각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와서 공부해야겠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정말 행운이었다.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광주일보와 뉴질랜드 문화교육원에 감사드립니다.

“6학년 수업서 한자릿수 덧셈...경쟁없는 천국”

이우찬 광주 북로초등학교

2월3일, 뉴질랜드로 출발했다. 거의 30일간 지냈다. 이 여행은 나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뉴질랜드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고, 공기도 매우 맑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흔히 '키위'라고 불리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처럼 인공잔디를 쓰지 않고 천연잔디를 쓴다. 천연잔디는 인공잔디보다 촉감도 좋다. 내가 있었던 홈스테이는 아주머니와 두 아들 세명이 살고 있는 이층집이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은 로웬(아주머니), 카바나(첫째 아들), 그리고 테인(둘째 아들)이다. 아주머니는 정말 잘 해주셨는데 예들은 많이 잊었다.

같이 홈스테이한 한국 친구의 이름은 서울서 온 조우성이었다. 우성이는 내가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는 친구였다. 아주 착한 아이다. 우성이와



뉴질랜드 6학년 친구들은 나보다 2살 정도 어렸다. 하지만 영어는 나보다 훨씬 잘했다.

뉴질랜드의 학교 교육 과정은 아주 느리다. 우리 반의 아이들은 5+7 같은 덧셈을 배우고 있었으니 학습 진도가 우리보다 느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대학교에 가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고 말

해주셨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자유롭게 지낸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본다.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유수하다. 반의 아이들은 우성과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방과후에 NZLES 클래스에서 광주일보·단기팀들과 했던 수업들, 매주 주말에 가졌던 체험 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과 겹쳐서 돌아와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평소에 하던 것에서 바꾸어 보기로 했다.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집에서 읽어야 할 영어책들과 문법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온 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정말 뿌듯하다.



조선대 히포크라테스 선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10일 오후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고,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 것을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선대 '글로벌하우스' 오늘 개관

480실 956명 수용 규모...지자체 지원 받아 건립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전북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조선대 '글로벌하우스(사진)'가 11일 개관한다.

글로벌하우스는 제2공학관 뒤편 옹곡고시원과 학관간 사이에 들어섰으며, 공사비 206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11층 2개동 건물로 지어졌다. 2인1실 480실로 총 956명을 수용한다.

학생들의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자치활동 및 학습활동을 위한 전용식당 및 체력단련실, 독서실과 정보검색실, 휴게실, 그룹스터디실,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을 갖췄다. 즉 글로벌하우스는 1층~2층을 영어만 사용하는 'English Only Zone'으로 운영하는 등 어학공부는 물론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글로벌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협력생활관



이라는 데 있다. 조선대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남·전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1억원의 건립기금을 출연한 데 이어 함평군(군수 안병호)도 5000만원,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1억원씩을 각각 출연했다.

기금 출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실을 우선 배정하고 출연지역 협력생활관 현관(동판)을 부여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의료 및 농어촌 봉사활동,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행사 참여 및 지원, 중고생 및 지역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협력 교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하우스는 지역의 인구 증대와 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대학의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상호협력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여대, UN 산하 UNAI 참여 대학 됐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최근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UNAI)의 고등교육역량개발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지정됐다. UNAI에는 미국의 코넬대, 중국

의 북경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전 세계 90여 개국 약 500여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7개 대학이 참여한다. 광주지역 소재 대학으로는 광주여자대학교가 유일하게 참여한다.

UNAI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2010년 11월 유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설립됐으며 유엔의 3대 지향점인 세계평화, 경제개발 및 인권신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출을 위해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들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글로벌 기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클롬버스시네마, MEGABOX, CINUS. 상무점: 1관 블랙스완 (18세), 2관 혈투 (15세), 3관 조선명탐정 (12세), 4관 아이엠넘버포 (12세), 5관 메카닉 (18세), 6관 알파엔오메가 (15세), 7관 컨트롤러 (15세), 8관 리멤버미 (12세), 9관 랭고 (12세), 10관 아이들 (15세). 하남점: 1관 알파엔오메가3D (12세), 2관 조선명탐정 (12세), 3관 컨트롤러 (15세), 4관 라퐁젤3D (15세), 5관 블랙스완 (18세), 6관 아이들 (15세), 7관 메카닉 (18세), 8관 리멤버미 (15세), 9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10관 랭고 (12세). MEGABOX: M관 컨트롤러 (12세),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아이엠넘버포 (12세), 4관 알파엔오메가 (15세), 5관 아이들 (15세), 6관 만추 (15세), 7관 리멤버미 (15세), 8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9관 메카닉 (18세). CINUS: 1관 아이들 (15세), 2관 아이엠넘버포 (12세), 3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4관 랭고 (18세), 5관 리멤버미 (15세), 6관 블랙스완 (18세), 7관 컨트롤러 (12세).